



한국농업 근현대화 100년 기념 농업기술대축전 개최

- 농촌진흥청서 8월30일부터 5일간 열려
- 양돈협, 양돈산업 홍보관 마련해 양돈산업의 발자취 알려

한국농업 근현대화 100년 행사가 8월30일부터 9월3일까지 5일간 농촌진흥청 구내 일원에서 거행된다.

한국농업 근현대화 100년 기념사업 공동준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정부 기관을 비롯해 농업인단체, 농업계, 학계, 산업체 등이 망라해 참여, 지난 1906년 경기도 수원에 권업모범장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농업연구와 함께 시작된 우리나라 농업의 근현대사와 그동안 축적된 발전상을 돌아보고 미래 농업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참관객들이 보고, 체험하고,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돼 열린다.

행사기간 중 주요행사로 한국농업 근현대화 100년 기념식과 농업과학심포지엄, 한국농업 희망 찾기 토론회, 농업 농촌 가치 증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농업유전자원센터 준공식, 기념 사진 전시회, 서울국제원예전시회 등이 열리며 농업연구 현장들이 모두 개방된다.

근현대화 100년을 기념하는 주 전시관은 농업과학관 내에 과거, 현대, 미래관으로 설치돼 공개되고 7000여 평의 잔디광장에 설치되는 부 전시관은 친환경축산관을 비롯한 12개 테마관이 총 100개 부스로 꾸며져 한 곳에서 한국농업의 100년 발전상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에 양돈협회는 전시행사 참관객을 대상으로 양돈협회의 활동과 역할을 알리고, 양돈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 등 전반적인 흐름과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홍보관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농업 근현대화 100년 기념사업 공동준비위원회 위원장 겸 대회장인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한국농업 근현대화 100년 기념행사는 우리 선조들의 농업에 대한 애정과 지혜를 계승하고 개방화 등으로 인해 어려워진 우리 농업, 농촌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참관을 부탁했다. **양돈**